**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2 부> 구원**

**서른 한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31)**

**85문) 교회의 치리 (권징)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거나 닫게 하나요?**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교리나(가르침),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드러 낼 때, 맨 먼저 형제된 마음으로 반복하여 그들에게 경계하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들이나, 악행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 즉, 장로님들께 알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의 경고들마저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성례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도 제외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십니다. (1)**

**그들이 잘못을 고친다는 약속을 하고 그 고친 삶을 나타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들로 다시 그들을 받아 들입니다. (2)**

**참조 성경귀절들:  
(1) 마태복음 18:15-20; 고린도전서 5:3-5, 11-13; 데살로니가후서 3:14-15.**

**(2) 누가복음 15:20-24; 고린도후서 2:6-11.**

**Question 85. How is the kingdom of heaven**

**closed and opened by church discipline?**

|  |  |
| --- | --- |
| **Answer:**   |  | | --- | | **According to the command of Christ,**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but show themselves to be un-christian**  **in doctrine or life are first repeatedly admonished in a brotherly manner.**  **If they do not give up their errors or wickedness, they are reported to the church, that is, to the elders.**  **If they do not heed also their admonitions, they are forbidden the use of the sacraments, and they are excluded by the elders from the Christian congregation, and by God himself from the kingdom of Christ. (1)**  **They are again received as members of Christ and of the church when they promise and show real amendment. (2)** |   **Bible References:**   1. **Matthew 18:15-20; 1 Corinthians 5:3-5, 11-13; 2 Thessalonians 3:14-15.** 2. **Luke 15:20-24; 2 Corinthians 2:6-11.** |

1. 교회의 치리와 궁극적인, 파문은그 멤버들에 국한한다. 교회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과 인인 세례로 그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 쇼회의 치리는 참교회의 3가지 표식들 중에 마지막에 해당된다. 누구에게 치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치리는 오직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 실제로는 그 교리와 삶에서 비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The church discipline and the ultimate one, the excommunication is concerned with those members of the church. They are in the covenant of God sealed and signified with their baptism. The church discipline is the last leg of the three marks of a true church. To whom is it applied? To thos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but show themselves to be ‘un-christian’ in their ‘doctrine’ and ‘life’.)

2. 치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치리의 시작은, 형제사랑에서 우러 난 “경고”로 부터이다. 치리는 모든 회중이 다 관여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치리가 시작될 수 조차도 없다. 마태복음 18:15-17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명령에 따라, 각 교회원과 당회는 죄를 저지른 교회원에게 반드시 형제애를 가지고, 교회의치리를 시행해야만 한다. 죄를 인지하게 된 교회원이 제일 먼저 그 죄를 저지른 교회원과 단 둘이서 만나 이 죄를 그에게 지적해 주고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인경계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나누고, 그 죄에 대해 증인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경계가 거절될 시, 이 문제를 교회, 즉 당회에(장로님들의 모임) 이야기 하여야만 한다. 당회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 사실로 드러 났을 때, 그 교회원을 불러, 형제애로 먼저 경계를 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석함을 금하게 된다 (조용한 치리). 그 교회원이 당회의 경계를 무시할 때, 당회는 첫 번째 공개발표를 온 회중에게 한다. 하지만 죄와 죄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죄인의 회개와 당회의 충실한 치리를 위해 회중의 기도를 부탁한다.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당회가 이웃교회들의 당회대표들과 의논을 거친 후에, 두 번째 공개발표를 하게 된다. 이 때는, 그 죄와 죄인의 이름을 밝히며, 계속하여 죄인과 당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경계를 죄인이 여전히 무시할 경우, 이웃교회들의 당회 대표들과 상의한 후에, 온 회중에게 세 번째 공개발표를 하게 된다. 즉 공식 “파문”의 (출교) 결정을 공개한다. 여전히 회개치 않는 교회원을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와는 모든 교제를 교회가 끊게 한다. 출교를 당한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생활에서 변화를 이루면, 당회가 변화된 삶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죄인에게서 받은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멤버로 그를 받아야만 한다.

(How should it be exercised? Its first step is by a ‘brotherly admonition’. It is to be ALWAYS involved with a whole ‘congregation’. Otherwise, it even cannot get started. By following the Christ’s instruction/command in Matthew 18:15-17, each member of the congregation and its consistory/session/meeting of elders must take every step to exercise the church discipline in brotherly love for the members who committed a sin. The concerned member must go to him/her and point out their fault. When individual and private admonition is not heeded, with one or two witnesses the initiator goes to the offender a second time and gives another admonition. When the offending member would not listen to the admonition, the offender needs to be reported to the consistory/session with the accompanying witnesses. After investigation of the accusation and finding it correct, the consistory/session/meeting of elders must start with admonishing the offender. That is the first admonition with forbidding the offender from participating the Lord’s Table (silent censure). If the offending member does not listen to the admonition, it’s time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to the whole congregation. No name is called, nor the sin is exposed with a request to pray for the offending member and the consistory’s faithful disciplinary exercises. If the offending member persists the evil way, and shows no signs of repentance. The second announcement before the whole congregation is needed after consulting neighboring churches/classis. On this occasion, the name of the offender with the sin is to be revealed. If the offender still insists his way, then after the consulting classis, the consistory make the third public announcement. This is to ‘excommunicate’ the non-repenting sinner by cutting off all fellowships with him. If the excommunicated person should afterwards repent and amend his sinful doctrine and life, the consistory can allow him to be re-admitted to be a member of Christ and of His church ONLY upon his promise of amendment.)

3.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 자신들을 자발적으로 교회(당회)의 경계과 치리아래 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만 하나, 만약의 경우에, 교리와 삶에서 그릇될 때, 당회의 경계와 치리를 받기를 약속하십니까?” 많은 교회원들이 자신들의 죄를 경계받을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의 믿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When we publicly profess our faith in the church and in the presence of God, we also voluntarily submit ourselves to the admoni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consistory. “Do you promise to submit willingly to the admoni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if it should happen, and may God graciously prevent it, that you become delinquent in doctrine and, or in conduct?” Many violate this promise when they are admonished to their own destruction.)